

중국 지방정부 정책 및 교류 동향

▶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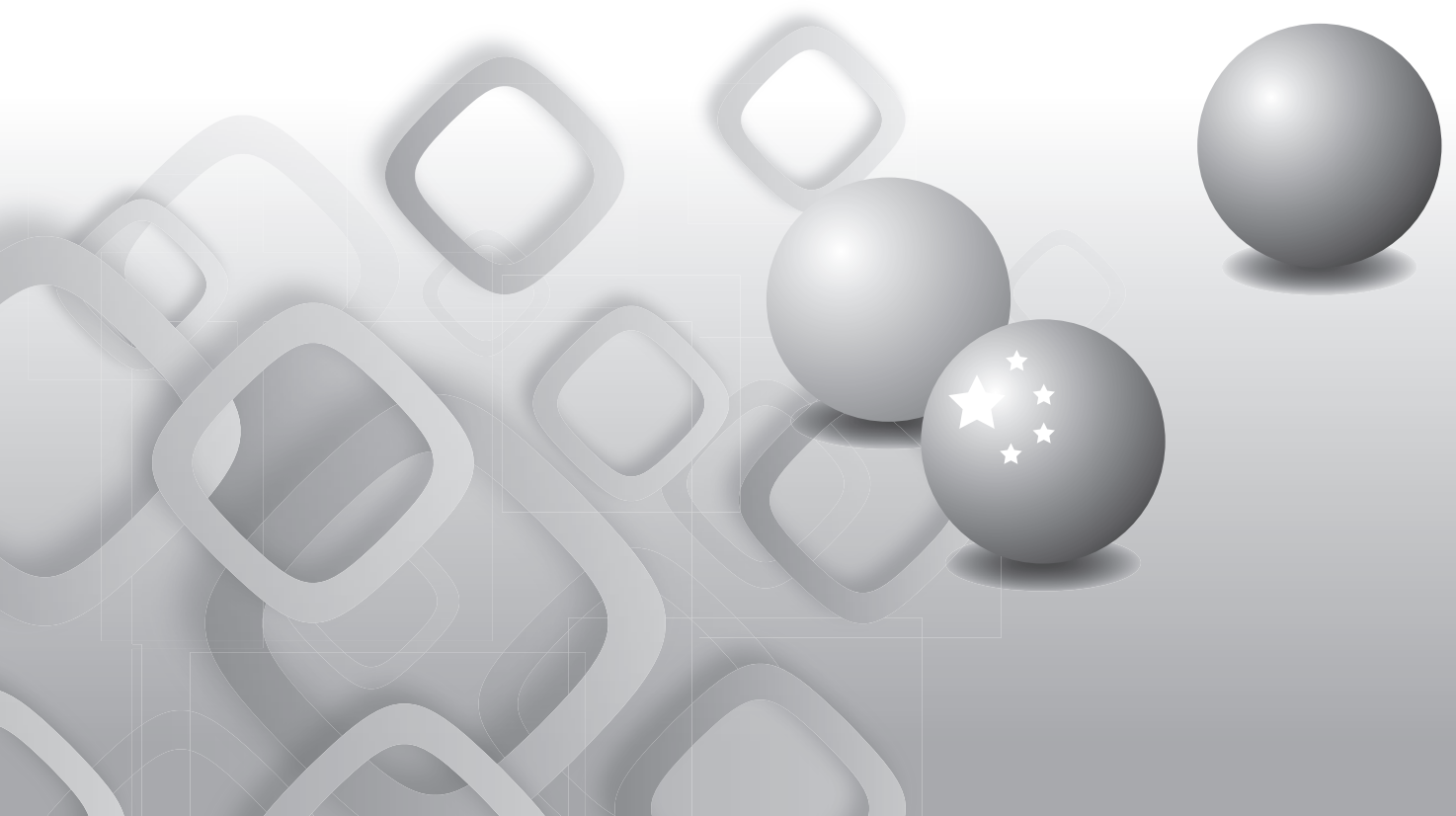
각 지방성정부 한·중산업단지에 새로운 청사진 제시
해외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활동주(活動周) 전개

▶ 국제교류동향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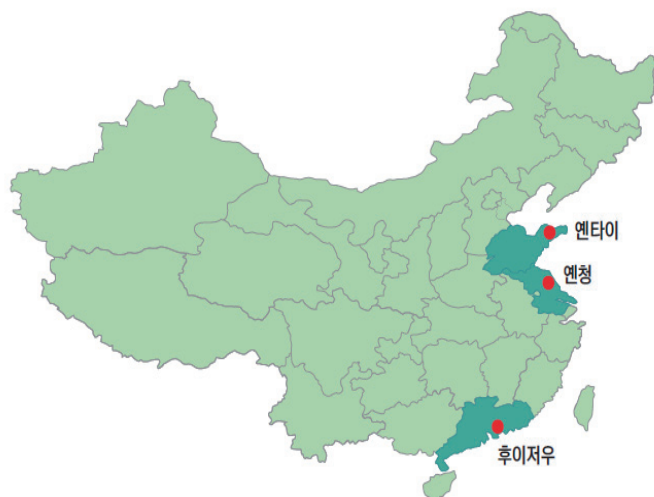
전춘복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각 지방성정부 한·중산업단지에 새로운 청사진 제시

작년 12월 국무원에서 엔타이한중산업단지, 옌청한중산업단지,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각 지방성정부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올해에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등 각 지방성정부에서도 연달아 한중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침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모두 충남도와 교류 중이며 그 중 광둥성과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어 충남도에서도 대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계획 등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 산둥성 엔타이 한중산업단지
- 총 면적 80.4km²

▷ 장쑤성 옌청 한중산업단지
- 총 면적 50km²

▷ 광둥성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 총 면적 94.1km²

<그림1> 한중 산업단지 분포

자료 : 산업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2018. 6)

한중산업단지 추진 경과

- 2014년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2015년 1월에는 한중산업단지 조성 합의안이 반영되었으며 10월에는 중국 국무부와 한국 산업부가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그 뒤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드디어 2017년 12월에 엔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한중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국무원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되었다.

산둥성 옌타이한중산업단지 근황

- 산둥성 정부는 2017년 12월 중국 국무부로부터 한중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식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나섰다. 드디어 지난 11월 14일 『옌타이한중산업단지건설실시방안(中韓(煙臺)產業園建設實施方案)』(이하 ‘옌타이산업단지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을 유치하고, 미화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대한국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 핵심구(동/서)
-(서) 37.5km²
-(동) 10.4km²

▷ 확장구(동/서)
-(서) 22.5km²
-(동) 10km²

<그림2> 한중옌타이산업단지 구획도

자료 : 옌타이한중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ytckip.gov.cn>)

- 공간계획 : 옌타이한중산업단지 건설 방안에서는 산업단지 공간적 분포를 크게 두 개의 핵심구와 두 개의 확장구로 설계했으며 총 면적은 80.4km²이다. 이는 계획초기 ‘1원 3구’로 구성하고자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 방안에 따르면 서쪽 핵심구는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동쪽 핵심구는 옌타이과학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하게 된다. 또 핵심구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 교통, 시설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한국과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신규산업의 발전을 추진시킨다고 한다. 서쪽 확장구도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관할구역에 속하고, 동쪽 확장구는 무핑구친수이한국공업단지(牟平区沁水韩国工业园) 내에 위치한다.
- 중점육성산업 : 옌타이산업단지 건설 방안은 ‘4개 기지, 2개 센터(四基地二中心)’의 중점 발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전자정보산업생산기지, 신소

재연구생산기지, 고사양설비생산기지, 생명바이오산업센터, 한·중현대서비스융합센터 건설을 제시하였다.

- 그 중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전국 제1호 한국 신재생에너지자동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하였다. 전자정보산업생산기지 건설에서는 주로 스마트가전제품과 고사양 패널, 빅데이터 등 분야의 중점 발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명바이오산업센터 건설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계기업과 합작하여 공동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표 1> 옌타이한중산업단지 중점육성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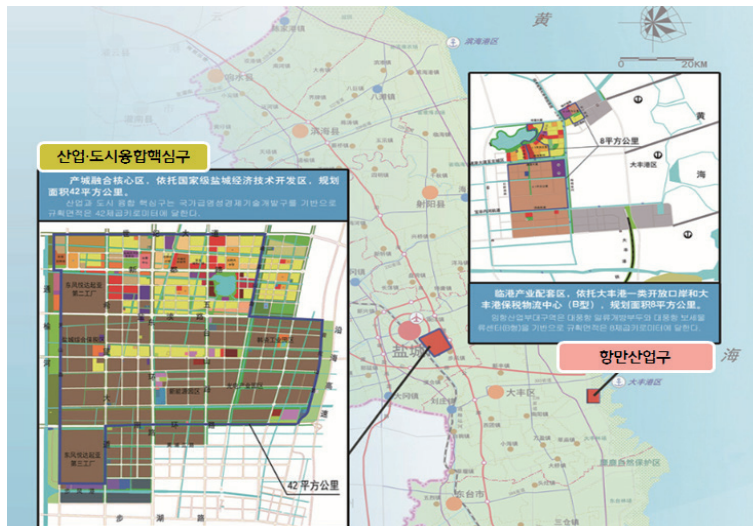
| 분야 | 세부계획 |
|-------------------|--|
|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기업부터 완제품기업까지, 생산부터 서비스를 아우르는 생산기지 조성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생산 ◆ 제1호 한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 기업 유치 목표 |
| 전자정보산업생산기지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가전제품, 고사양 패널 등 신기술 제품 제조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산업 발전 추진 ◆ 공업설계, 해양정보관리 등 분야 중점 추진 |
| 신소재연구생산기지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연구생산기지를 전국 최대 규모로 발전 |
| 고사양설비생산기지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인쇄, 로봇, 스마트해양설비관측 등 설비 중점생산 |
| 생명바이오산업센터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옌타이생물바이오창업센터(煙臺業達生物醫藥創新孵化中心) 등 기관이 한국의 의료기계분야 대표기업들과 공동으로 생명바이오산업센터 건설 추진 |
| 한중현대서비스융합센터: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물류, 의료, 교육, 문화 등 서비스업의 융합 촉진 ◆ 특히, 항공항운 노선 증설 및 해외전자상거래물류기지 건설 ◆ 양국 문화관광 분야의 긴밀한 합작 추진 |

자료 : 魯政字[2018]273號, 中韓(煙臺)產業園建設實施方案

- 외자유치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업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1) 500만 위안 이상의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는 투자금의 10%를 환급하고, 특히 국가급, 성급 녹색제조기업에는 일회성으로 50만 위안 혹은 100만 위안의 상금을 준다. 2) 5000만 위안 이상 투자한 신설기업에도 고정자산투자금의 약 3%를 지원한다. 3) 창업혁신 관련해서 해외 우수인재나 기관은 평가를 거친 후 천만 위안에서 최고 3000만 위안의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쑤성 옌청한중산업단지 근황

- 지난 2017년 12월 중국 국무부로부터 한중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장쑤성 정부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나섰다.
 - 지난 6월에 옌청한중산업단지 총체적인 발전계획을 내놓았고, 9월에는 『옌청한중건설실시방안(中韓(鹽城)產業園建設實施方案)』(이하 ‘옌청산업단지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9월에 발표한 산업단지실시방안은 산업단지 공간적범위, 구체적인 협력산업분야,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옌청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3,730여개이며, 그 중 한국기업은 260개이다. 실제로 미화 26.85억 달러의 외국자본이 투자되었고 그 중 한국자본은 미화 19억 달러에 달한다. 물동량 총액은 205.58억 달러이며 한국과의 거래액은 99.2억 달러이다.



▷ 산업·도시융합핵심구

- 전체면적 42 km²

→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로 건설

▷ 항만산업구

- 전체면적 8 km²

→ 따평항 중심으로 보세물류센터 조성

<그림 3> 한중옌타이산업단지 계획도

자료 : 옌청한중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ycedz.com>)

- 공간계획 : 옌청한중산업단지 총면적은 50km² 이고, 공간적으로는 산업도시융합핵심구(產城融合核心區)와 항만산업구(臨港產業配套區)로 구성된다. 산업도시융합핵심구는 국가급옌청경제기술개발구로 건설될 것이며 면적은 42km² 이다. 항만산업구는 따평항구(大豐港)를 중심으로 면적 8km² 에 달하는 보세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 협력산업 : 옌청산업단지 건설 방안에서는 총 5개 산업분야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전자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설비산업, 항만산업, 현대서비스업이다.

<표 2> 옌청한중산업단지 - 중점 추진 한·중 협력 산업

| 산업분야 | 세부계획 |
|------------|--|
| 자동차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기술개발 지지, 시장판매 및 수출 확대 ◆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수입 적극 추진 ◆ 자동차연구개발, 물류, 금융보험, 문화·창의 등 자동차 관련분야 발전 촉진 |
| 전자정보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업종을 도입 ◆ 집적회로, 자동차전자, 소프트웨어 등 핵심산업 중점 육성 ◆ 5G, 인공지능, OLED 등 산업도 적극 추진 |
| 신재생에너지설비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해양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제조업 ◆ 전 산업의 '신재생에너지+'를 실현해 국가클린에너지기지로 자리매김 |
| 항만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평항과 부산, 인천, 평택 등 운항조건을 활용해 고급설비제조, 신재료, 해양바이오, 보세물류창고 등 산업 중점 발전 |
| 현대서비스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경제분야, 건강의료산업, 국경간 전자상거래산업 발전 가속화 ◆ 한중수출입물류무역기지 조성 |

자료 : 蘇政發(2018), 121號, 省政府關於印發中韓(鹽城)產業園建設實施方案的通知

- 사업추진방안 : 옌청산업단지 건설 방안에서는 산업단지 건설의 주요 임무로 기반설비 건설 가속화, 투자기업과 자금의 선별적 선택, 제도적 혁신에 대하여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만금이나 KOTRA와 다양한 분야에서 합작계획을 제시하였고, 기반 건설측면에서는 '한중해외전자상거래항구' 조성, '한중과학기술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3> 옌청한중산업단지 사업추진방안

| 산업분야 | 세부계획 |
|------------------------------|--|
| 기반 건설 가속화 | ◆ 항공물류단지 건설(국제노선 증설, 한중해외전자상거래항구 건설 등) |
| | ◆ 대외 통로 확대(한국 중요 항구 및 새만금 운항노선 증설, 따평항철로 간선 건설 등) |
| | ◆ 산업단지 기능 정비(자동차마을(智尚汽車小鎮) 조성, 중한2.5산업단지, 항구문화거리 등) |
| | ◆ 무역플랫폼 건설 (KOTRA(옌청점) 유치, 한중무역박람회 추진 등) |
| | ◆ 한중과학기술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립 (미래창조과학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테크노밸리 등 합작) |
| 투자기업과 자금 선별적 선택 (擇商選資) | ◆ 첨단산업 합작 추진(새만금, KOTRA와 합작, 한국 대기업의 투자 촉진 등) |
| | ◆ 장쑤성과 한국 에너지산업 분야 합작 확장(한국과의 교류를 장쑤성정부 차원의 연간계획으로 승화, 장쑤성 내 기업들이 새만금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분야에 투자·건설을 촉진) |
| | ◆ 투자유치 체제 혁신(투자유치조직 설립, 새만금산업단지와 공동으로 글로벌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 등) |
| | ◆ 선두산업 강화(세계500강기업의 투자진출 촉진, 국가집적회로투자자금, 신흥창업투자자금 조달 등) |

| | |
|---------------|---|
| 제도적 혁신 | ◆ 투자무역제도의 개혁 |
| | ◆ 서비스영역의 점차적인 개방 |
| | ◆ 무역 검역 관리서비스 개선 |
| | ◆ 해외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
| | ◆ 금융개혁 |
| | ◆ 고급인재 유인을 위한 서비스 편리화(맞춤형 호구등록, 의료, 자녀학교문제, 배우자 직장문제 등) |
| 인문영역의 교류협작 확장 | ◆ 문화관광산업의 융합발전 추진 |
| | ◆ 직업교육 및 위생분야 협작 강화(양국 교육기관간의 전략적 협작 관계 추진, 전문 의료진 양성 사업 공동 추진) |

자료 : 蘇政發(2018), 121號, 省政府關於印發中韓(鹽城)產業園建設實施方案的通知

광둥성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 근황

● 광둥성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도 지난 2017년 12월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단계별 준비 절차를 걸쳐나갔다. 올해 6월 후이저우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둥성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국·광둥 - 한국발전교류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일 행사에서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의 정식 가동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한중산업단지 투자유치분야의 ‘외자유치 10가지 조례’에 대한 설명회에서 신규 프로젝트나 연구개발 특허, 인재유치 등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 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신설 외자기업과 신규 프로젝트 유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부여한다고 한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화 천만 달러 이상 투자 및 성실 납세한 한국 기업에는 납세 연도부터 3년간 시, 현(구)에 기여한 부분의 60%를 최고 천만위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기존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는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의 외자이용 시, 또는 기존 사업이 미화 천만 달러 이상 투자규모 확대 시 후이저우시에서 해당년도 실제 투자한 외자금액의 2%를 환급하고 최고 2000만 위안을 지급한다. 3) 산업단지 기입점 기업이 미화 천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을 한국으로부터 유치해오거나 한국으로 건너가 투자할 경우에 적정비율로 환급을 하며 최고 3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4) 그리고 기업 혹은 연구기관이 한국으로부터 첨단기술, 희소성 인재, 정보 등 분야를 유치하되 국내 권위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미화 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금의 적정비율을 환급하되 최고 5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그림 4>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가동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 :東方頭條 (<http://www.ycedz.com>)

- 고급인재 유치 분야는 연구기관의 신규 유치, 발명특허등록, 과학기술 창업에 대해서도 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연구기관 신설 시 최고 2000만 위안, 발명특허건은 건당 최고 9000만 위안을 지급하고 연봉 50만 위안이상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도 한도 내에서 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해외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활동주(活動周) 전개

대중창업, 만중혁신 활동주 전개

- 지난 2015년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이하 ‘쌍창(雙創)』이라는 슬로건을 연설 중에 제시하면서 창업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쌍창플랫폼(雙創在線)을 개설하고 같은 해 10월 전국 대중창업만중혁신 활동주(全國大眾創業萬眾創新活動周, 이하 ‘쌍창활동주’)이 베이징에서 가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을 첫 회로 매년 10월에 쌍창활동주를 개최하며, 2016년부터 선후로 선전, 상하이, 청두에서 개최하였다. 매년 쌍창활동주 추진기간에 전국 동시적으로 지역별 활동을 추진해 전국적인 쌍창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그리고 2017년부터는 중국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쌍창활동주를 전개하였다. 그 동안 중국 국내에서 추진해온 쌍창활동이 세계 각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의 신창업 관련 정책들을 알리고 또 국내에서 추진했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해외 쌍창활동주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까지 미국, 이스라엘, 독일, 호주 등 8개 국가의 15개 거점에서 모두 22차례의 해외 쌍창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림 1> '대중창업만중혁신' 활동 추진 해외국가 분포

자료 : 中國雙創在線

- 2017년에는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 미국에서 쌍창활동주를 개최하였고 마지막 총회는 홍콩에서 개최하였다. 홍콩 총회에서는 중국 쌍창의 시대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홍보하는 한편, 홍콩 지역 화교동포들의 교류를 강화시켰다. 미국 팔로알토에서 개최한 해외창업혁신포럼에서는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하였으며 최고상금은 미화 101만 달러에 달해 노벨상 상금보다 더 많아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 2018년에는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덴마크,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창업천국'이라는 주제로 청두시정부와 텔아비브창업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현지에 청두 - 이스라엘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에 거점을 만듦으로써 현지의 창업열풍을 국내로 유인하거나 현지 기업과 인재들에게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표 1> 017 - 2018 해외 쌍창(雙創) 활동 주요 추진 내역

| 추진시기 | | 국가 · 도시 | 기관 | 주제(주요내용) | 특기사항 |
|------|----------|-------------------|-------------------------------|---|----------------------------|
| 2017 | 9. 6 | 이스라엘 · 텔아비브 | Techcode 엑셀레이터 | 사회화의 창업정신 (社會化的創業精神) | 약 300명 참석 |
| | 9. 7 | 독일 · 포츠담 | 브란데부르크 혁신 센터 | Techcode엑셀레이터 – 브란데부르크 혁신센터 개업식추진 | 중-독 건강산업 분야에서 창업협작 및 교류 |
| | 9. 14-15 | 스페인 · 마드리 | 자치대학 콤플루텐세대학 | 중 – 스페인 창업발전포럼 (中西雙創發展論壇) | 기업인 20명 참석 |
| | 9. 16 | 미국 · 팔로알토 | 스탠퍼드대학 | 해외창업혁신포럼 개최주제 : 국제창업혁 신도시와 창업인재 모임 | 경진대회 상금 미화 101만 달러 |
| | 9. 16 | 미국 · 댈러스 | DFW엑셀레이터 · Foundry Club | 해외신유통 · 신과학기술회담 (海外新零售·新科技趨勢峰會) | 약 300명 참석 |
| | 9. 17 | 중국 · 홍콩 | 홍콩대중화창업 및 직업발전센터 | 창업 업그레이드 및 신동력 육성(雙創促升 級, 壯大新動能) | 2017 총회 |
| 2018 | 9.2-7 | 영국 | 케임브리지대학 뉴캐슬대학 | 해외고급인재상담회 3회 개최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3회 추진 | 영국과 스위스에 인재추천거점 설립 |
| | | 스위스 · 취리히/다 보스 | 취리히대학 Greencity 다보스회의중심 | | |
| | 9. 6 | 이스라엘 · 텔아비브 | 텔아비브창업센터 | 창업천국(創業天府) | 청두 – 이스라엘혁신 센터 설립 |
| | 9.11 | 덴마크 · 코펜하겐 | 코펜하겐시, 상해시 | 중 · 유럽 클린테크놀로지 경진대회 개최 – 총 35개 기업 참여 – 우수기업에 1년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중국시장에 관심 있는 유럽기업에 기회 제공 |
| | 9.25 | 인도네시아 · 자카르 타 | 청화경영창업센터 ATM capital | 동남아 창업인재 육성계획(SEAU) 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동남아 과학기술의 거물 육성 |

자료: 中國雙創在線 자료 정리

- 해외 쌍창활동주는 현지 창업센터 등 기업 혹은 고등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정책, 중국의 창업환경, 투자지원 및 시장성을 전 세계에 파급하는 효과가 있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창업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 창업아이템경진대회 개최, 해외 인재 모집 등으로 구성되며, 우수한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중국 진출 기회나 투자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림 2> 2018 해외 대중창업, 만중혁신 활동주 홍보 포스터(좌), 해외 활동 사진(우)

자료 : PNP창업센터, 中國雙創在線

전국에 창업시범기지 총 120개 조성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중점 추진하는 쌍창활동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창업시범기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2018년 12월 기준 중국 전역에 총 120개의 창업시범기지가 조성되었다. 창업시범기지는 구역시범기지(區域示範基地), 기업시범기지(企業示範基地), 대학·연구기관시범기지(高校和科研基地示範基地) 등으로 나뉜다.
- 중국 성·시 중에서 창업시범기지가 많이 집중된 지역은 베이징시와 저장성이며 각각 12개와 8개로 상위권에 랭크되며, 다음으로는 랴오닝성, 광둥성, 푸젠성, 장쑤성, 허난성, 쓰촨성 등 순이다. 2016년 5월 첫 회 창업기지 지정 및 조성 시 총 28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다음해에 추가로 92개의 창업시범기지를 조성해 현재까지 중국에 총 120개의 창업시범기지가 조성된 셈이다.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후베이성 우한에서 개최

- 2018년 11월 16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우한시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中國國際友好城市大會)'가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 올해의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에는 국내외 총 700여명의 지역대표가 참석하였는데, 해외에서는 세계 60여개 국가의 125개 성·시와 35개 기관에서 참여하였고, 중국 국내에서는 115개 성시에 서 참석하였다.



<그림 1>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막식 사진(좌)과 각 도시들의 수상사진(우)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 이번 대회는 인류운명 공동체와 지방정부 발전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대회는 『발전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상호협력을 심화하자(共享發展機遇、深化互利合作)』라는 주제 하에 '현대화', '국제화', '생태화' 3개 세션으로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호도시들 사이에 서로 우수한 경험을 교류하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폐막식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국제도시들의 우호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상을 발급하였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새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도 있었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우호교류협력상과 국제우호도시특별공헌상 등 두 가지 상을 수여하였다.

- 우호도시교류협력상은 중국 지방성·시와 우호교류관계에 있는 해외 도시(성·시)와, 중국 국내 성·시 중에서 우호교류에 증진하고 공헌을 많이 한 도시에 주는 상이다. 올해 한국지 방정부 중에서는 전라남도, 세종시, 시흥시, 진주시, 경산시가 상을 받았다.

<표 1>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수상 내역

| 명칭 | | | 지역 |
|-------------|------|------|---|
| 우호도시교류협력상 | 해외 | 해외기타 | 독일 바이에른주, 호주 브리즈번시, 일본 후쿠오카, 이스라엘 헤이파, 남아프리카 림포포주 등 78개 성 · 시 |
| | | 한국 | 전라남도, 세종시, 시흥시, 진주시, 경산시 |
| | 중국국내 | | 톈진시, 산시성(山西省), 창사시 등 40개 성 · 시 |
| 국제우호도시특별공헌상 | | | 장쑤성, 광둥성, 허난성, 우한시 |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 같은 기간에 중국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작대회도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업무협약체결식을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전체 21개 항목에 걸쳐 총 1398.9억 위안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체결 분야

- 자동차 부품
- 생명바이오
- 에너지환경
- 국제물류
- 신유통
- 문화교육 등

<그림 2> 2018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작대회 현장 사진

자료 : 동팡터우티아오(东方头条, http://mini.eastday.com)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요

-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는 중국 내에서 우호도시와 연관된 가장 권위 있는 회의이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대회는 2008년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제6회를 개최하였다. 개최도시는 선후로 베이징, 상하이, 청두, 광저우, 충칭, 우한이다.



<그림 3> 2008중국국제우호도시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연설 사진(좌)과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우)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최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우호교류를 추진 중인 해외 지방정부, 국제교류 관련 조직 및 국내외 교류분야 종사자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업무성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우수한 경험을 배우기도 하면서 모두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안을 탐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도시들과 세계 여러 나라 우호도시간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 지방도시들의 국제교류 수준을 발전시키고자 함이기도 하다.

<표 2>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최 경과 (2008-2018)

| 회차 / 개최시기 | 개최도시 | 개최규모 |
|---------------|------|--|
| 제1회/ 2008. 11 | 베이징 | 약 500명 참석 - (해외) 35개 국가의 77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30개 성·시의 50여개 기관 및 단체 |
| 제2회/ 2010. 9 | 상하이 | 약 600명 참석 - (해외) 47개 국가의 427명 대표 - (중국) 31개 성·시의 144여명 대표 |

| | | |
|---------------|-----|---|
| 제3회/ 2012. 11 | 청두 | 약 720명 참석 - (해외) 49개 국가의 95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90개 기관 및 단체 |
| 제4회/ 2014. 9 | 광저우 | 약 600명 참석 - (해외) 56개 국가의 277개 기관 및 단체 |
| 제5회/ 2016. 11 | 충칭 | 약 600명 참석 - (해외) 56개 국가의 195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107개 성·시 및 단체 |
| 제6회/ 2018. 11 | 우한 | 약 500명 참석 - (해외) 60개 국가의 160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115개 성·시 및 단체 |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바이두백과(百度百科) 자료 정리

참고자료

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

中國煙臺政府門戶網站, www.yantai.gov.cn
 煙臺中韓產業園, www.ytckip.gov.cn
 中國鹽城鹽城政府網官網, www.yancheng.gov.cn/
 中韓鹽城產業園, www.ycedz.com/zhcyy
 惠州市人民政府, <http://www.huizhou.gov.cn>
 中韓惠州產業園, <http://ckip.huizhou.gov.cn>
 中國雙創在線, m.cyzx.org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http://www.cpaffc.org.cn>
 東方頭條, <http://mini.eastday.com>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中韓(鹽城)產業園繪就發展“新藍圖”, (검색일 : 11. 5)
<http://news.jstv.com/a/20181027/1540694498555.shtml>
 中韩(惠州)产业园启动将打造粤港澳大湾区外经贸合作平台, (검색일 : 11. 10)
http://www.gd.gov.cn/gdywdt/dsdt/content/post_100957.html
 2018中国国际友好城市大会武汉召开 我省获“国际友好城市特别贡献奖”, (검색일 : 12. 01)
http://wb.jiangsu.gov.cn/art/2018/11/20/art_326_7886238.html
 中國雙創活動周走進美國波士頓, (검색일 : 12. 10)
<http://tech.qianlong.com/2018/1012/2876177.shtml>
 培育十大特色产业 中韩(烟台)产业园又有新消息, (검색일 : 12. 20)
http://www.sohu.com/a/280548509_755878